

Design:ON

# 글로벌박람회와 MWC 2021 Barcelona

## Connected Impact

The Impact of COVID-19  
on Global Exhibitions

MWC 2021 Barcelona,  
Connected I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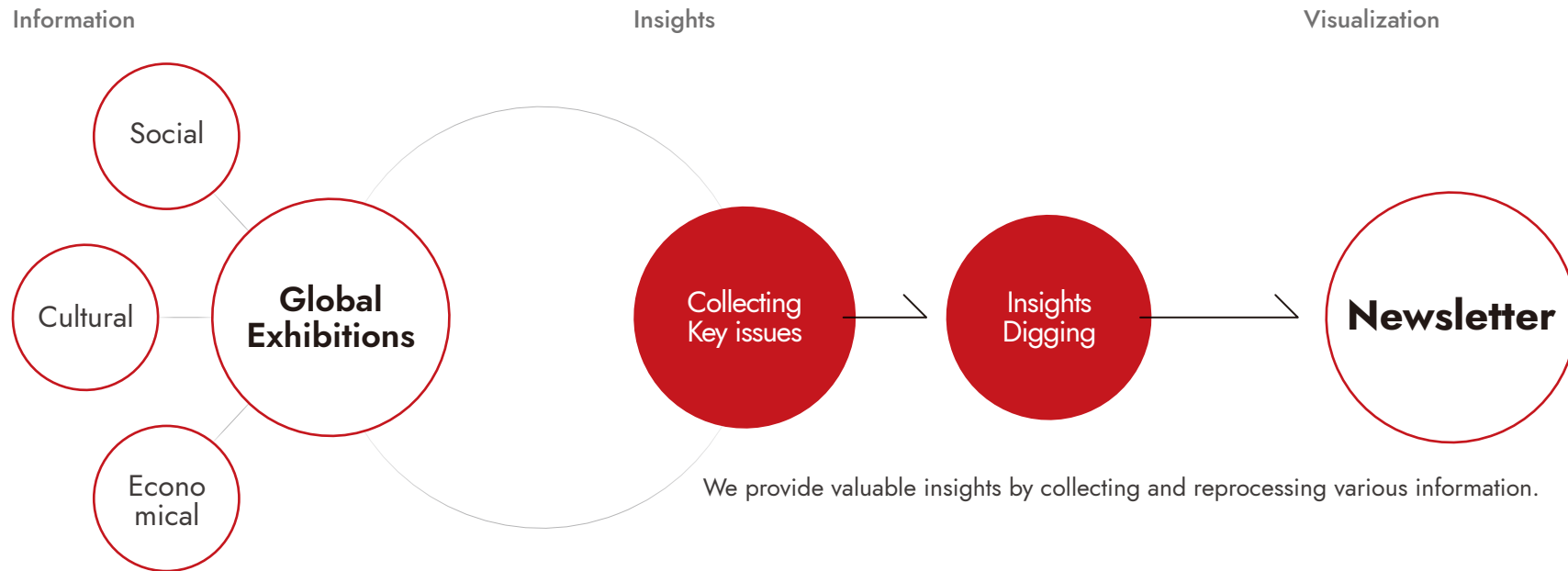
# CONTENTS

---

DESIGN ON	1
PART 1. 코로나19가 글로벌 박람회에 미친 변화	2
01. 글로벌 박람회	3
02.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박람회 현황	5
부록 I 해외 박람회 참가 방법 소개	7
PART 2. MWC 2021 바르셀로나, 커넥티드 임팩트	8
01. MWC 2021 주제	11
02. 커넥티드 임팩트 Connected Impact	12
0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 - 5G Everywhere, 우주 인터넷 시대	14
04. 더욱 강화된 보안	16
05.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커넥티드 기술	17
06.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를 위한 스마트한 기술 및 제품 소개	18

# Design:ON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양한 박람회 정보들을 취합하고, 가치 있는 정보로 해석하여,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디자인 기업에게 전달해 드리는 뉴스레터 입니다.



**첫번째로 발행되는 디자인:온 뉴스레터**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전세계 박람회들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실제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합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되어 진행 되었던 MWC2021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온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융합 콘텐츠 기업, 디브리프(Debrief)가 함께 제작, 배포합니다.

## PART 1.

# 코로나19가 글로벌 박람회에 미친 변화

## The Impact of COVID-19 on Global Exhibitions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하고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팬데믹(Pandemic)이 선언된 코로나19. 이 사태가 언제 끝날까 그 끝을 애타게 기다리며 비대면과 거리 두기가 어느새 일상이 된 지 벌써 1년 반이 훌쩍 넘었습니다.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1억 8천 8백만 명을 넘었고, 변이 바이러스만 해도 알파부터 람다까지 12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산업, 교육, 여가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단시간에 큰 변화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교육, 여가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중행사로 전 세계의 유사 산업 군들이 모여 자신들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뽐내던 글로벌 박람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전 세계의 대부분의 박람회는 사상 최초로 줄줄이 취소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함께 점차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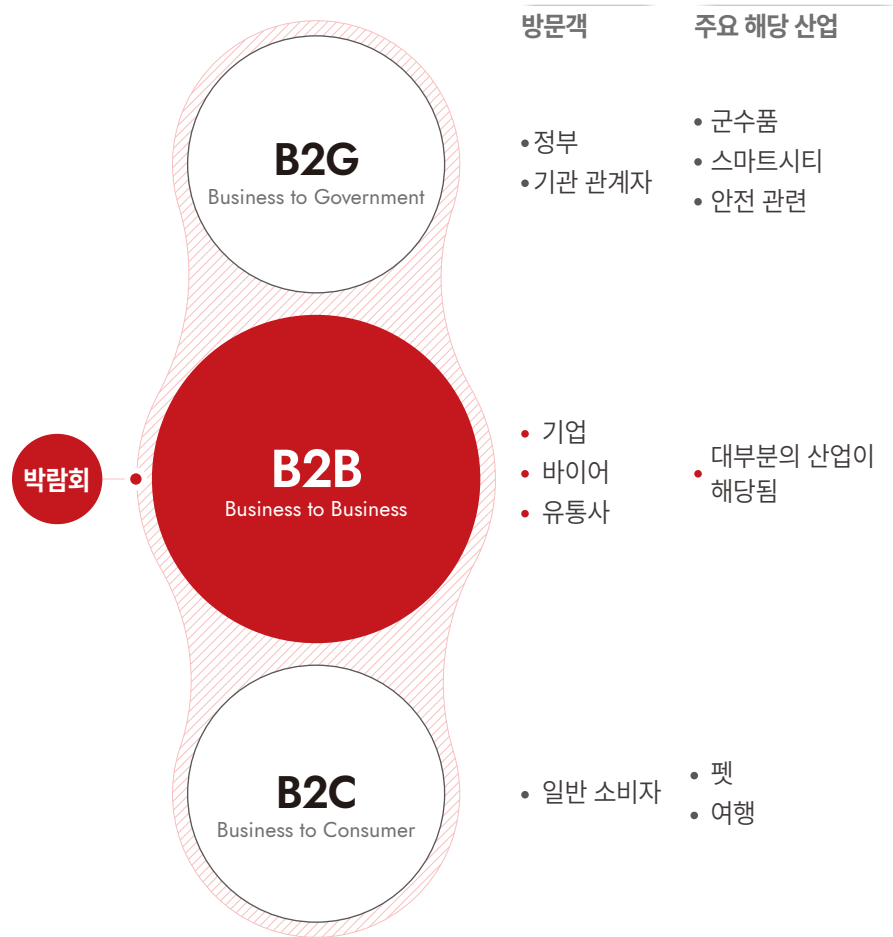
# 01.

## 글로벌

## 박람회

박람회는 관람객의 기준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정부나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G, 기업과 바이어 및 유통사를 대상으로 하는 B2B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그리고 B2B와 B2C가 혼합된 형태가 존재합니다.



출처: 마이페어 블로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내용임

B2C는 Public Show 혹은 Consumer Exhibition이라고도 불리며, 글로벌 단위보다는 로컬 단위의 박람회가 많은 편입니다.

소비자 그룹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수요 조사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수출 기업의 경우 해외 박람회를 참가함으로써 현지 고객들의 시장 반응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글로벌 규모의 박람회들은 대부분 B2B 유형에 속합니다.

Trade Show 혹은 Trade Fair로도 불리며, 구매 담당자 등 해당 분야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참가 기업에게 비용 대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박람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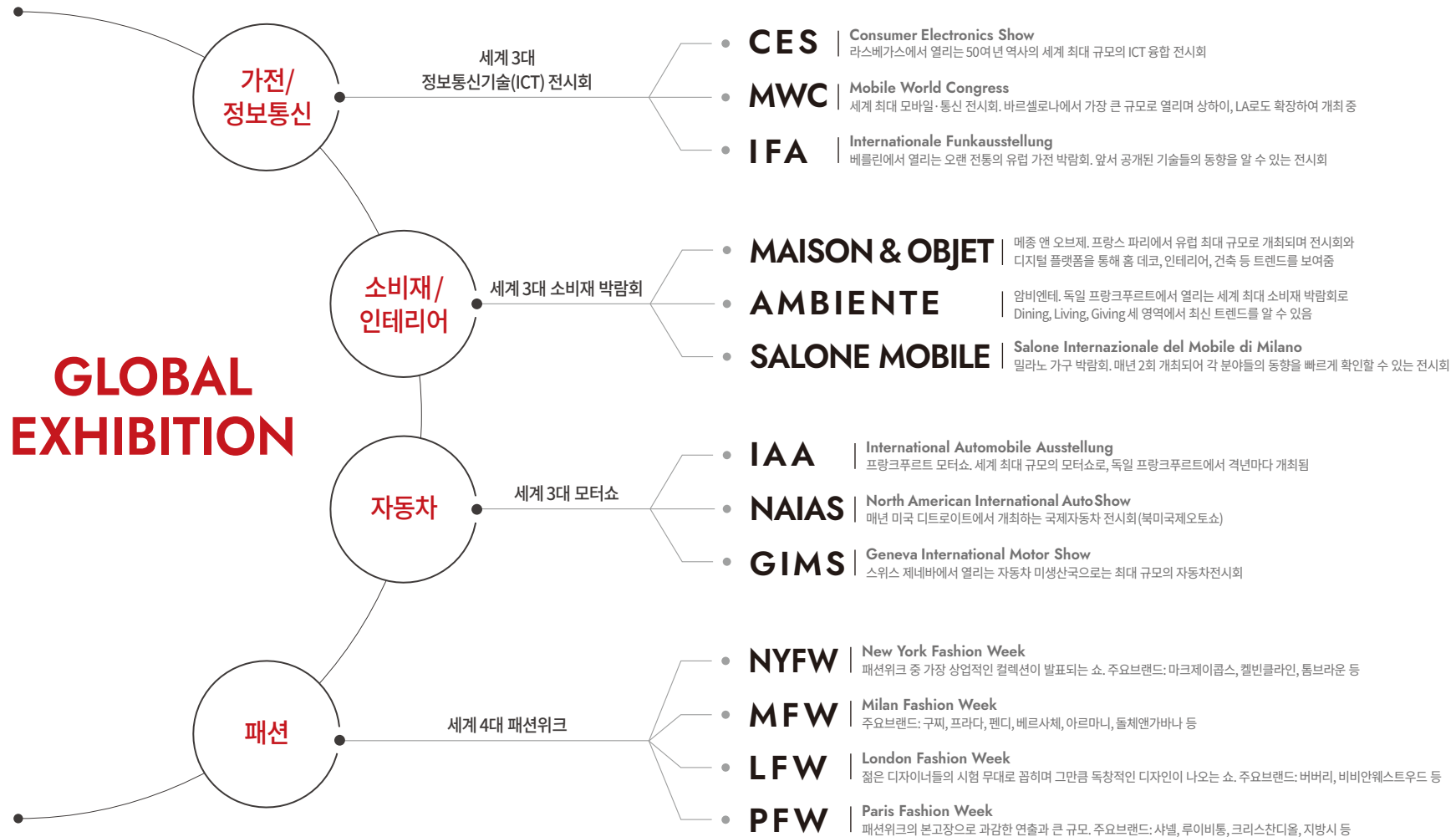
이번 디자인온에서는 B2B 영역의 글로벌 박람회, 그리고 그중에서도 영역별 정상급의 주요 박람회의 변화에 대해 논합니다.

# 01.

## 글로벌

## 박람회

세계적으로 매년 열리는 B2B 박람회는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전 세계의 유명 선도 기업들이 참가하며 다양한 매체와 소비자들까지 주목하는 주요 분야로 디자인온에서는 가전/정보통신, 자동차, 소비재/인테리어와 패션이라는 4개 분야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세계 3대 혹은 4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박람회들을 아래와 같이 각 분야 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기업이라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4가지 영역의 13개 글로벌 박람회가 코로나19 이후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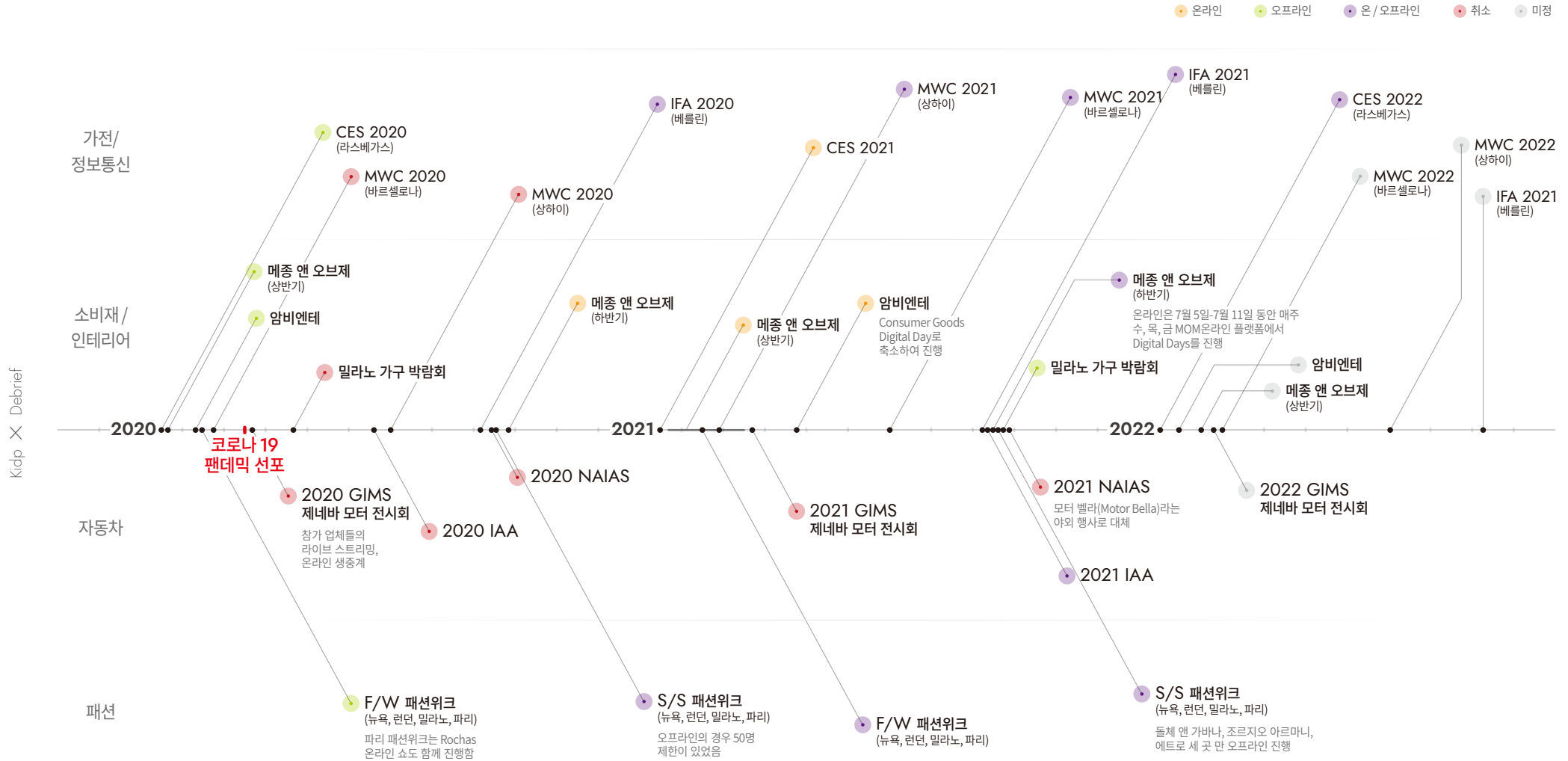


## 02.

### 코로나 19 이후

### 글로벌 박람회 현황

아래 그림은 진행 방식(취소,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방식)에 대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내년까지의 각 박람회 전망 자료입니다. 작년 팬데믹 선포 이후 즉각적으로 모든 박람회들 일정은 취소가 되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온라인 박람회가 열리게 되고, 또한 최근에는 축소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방식으로 박람회가 개최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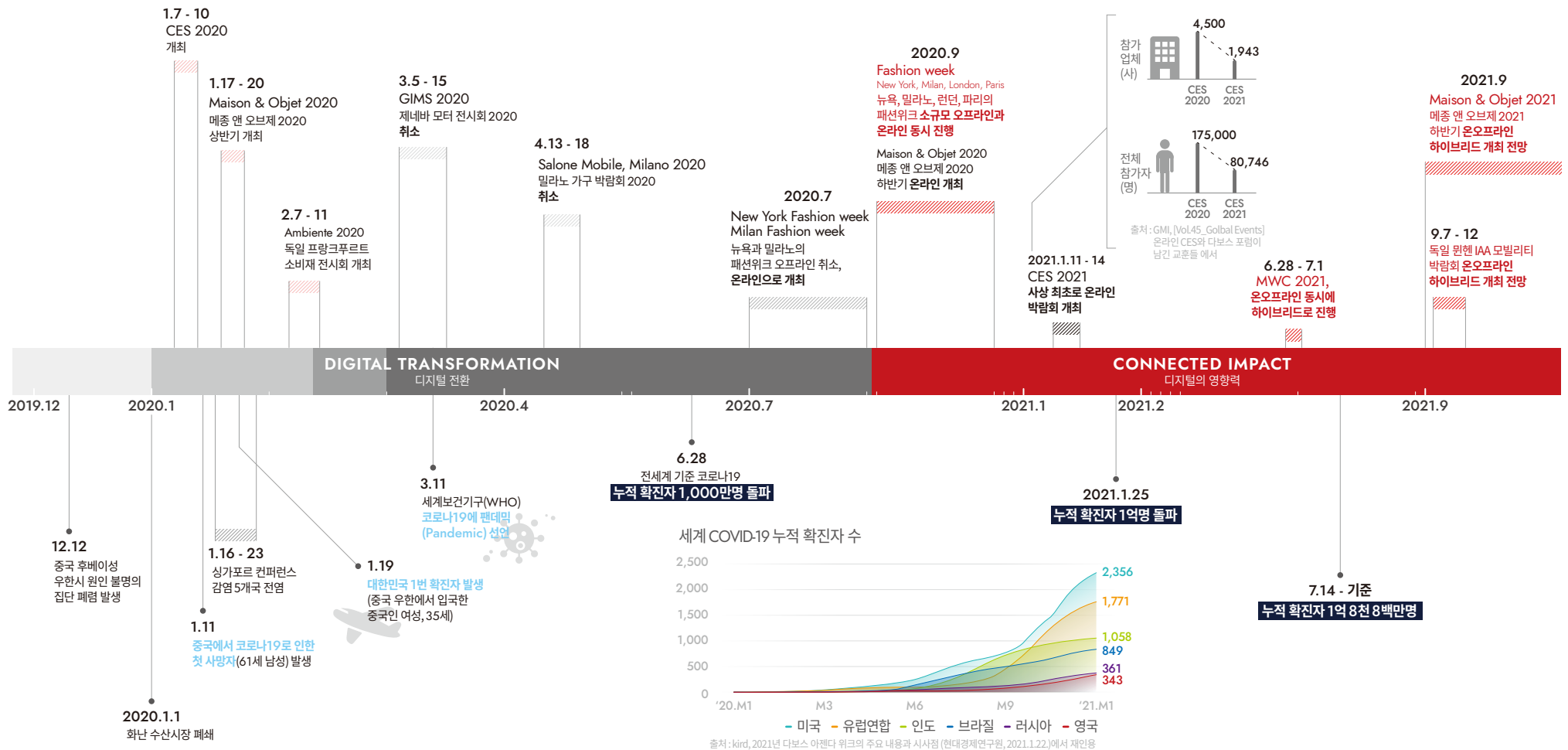


## 02.

### 코로나 19 이후

### 글로벌 박람회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이루어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많은 글로벌 박람회들이 온라인 생중계(Live Streaming) 방식으로 키노트나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참여 기업들은 박람회 홈페이지, 기업 공식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등 각자의 방식으로 가상 쇼나 발표(Virtual show or presentation)을 진행하였습니다. CES 2021을 통해 발표된 삼성의 디지털 컨퍼런스 영상은 조회 수가 3378만 회에 이릅니다. 향후 온라인 행사는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시공간적인 편의성 그리고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닌 다수에 의한 전파력 등의 이유로 그 파급력이 오프라인 행사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진행 방식의 영향력을 확인한 많은 기업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온라인 행사를 병행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부록.

### 해외 박람회 참가

### 방 법 소 개

코로나19 백신에 의한 기대감으로 내년도 박람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MWC를 포함하여 세계 3대 IT 박람회라고 불리는 CES의 경우, 이미 주관사인 CTA에서 CES 2022의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CES는 CTA에서 승인한 기업에 한해서만 참가가 가능하기에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가 방법에는 크게 국고 지원을 받아 한국관에 참가하는 방법과 국고 지원 없이 개별 참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참가 방법



#### 국가관 - 통합 한국관

국가관 참여 가능 위치  
Eureka park, Design & Source,  
Country Pavilion



CES 홈페이지 참가신청

국고지원을 받아 한국관에 들어가길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자세한 정보는 각 지자체의 사이트 내 지원 사업 안내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 참가

CES홈페이지 - register에 직접 등록  
혹은 국내 Sales Agent (KICTA, 에이스  
마케팅 등) 활용

(국고는 미지원이나 참가 행정대행 가능, 단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바람.)

참가사

20.1.1 이후제품 출시하고  
브랜드 보유기업

통합 한국관 참가위치

Eureka Park  
(Sands expo) \* 2회 참가 가능

신청 방법 & 주관기관

<통합 한국관 주관기관-국고지원>

KOTRA, KEA,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용인시)  
(통합공고중) [www.gep.or.kr](http://www.gep.or.kr) > 참가신청  
- KOTRA단체참가

CTA 심사 & 부스배정

CTA 신청서작성

심사

7월 한 신청시 약 2-3주 소요

개별참가를 희망하시는 경우, CES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등록하시거나, 국내 에이전시 등을 활용하여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통합) 한국관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JNEtaR\\_xvPKuY6zs23De18ZWv8gJUMG9UteDrITTWJBivA/viewform](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JNEtaR_xvPKuY6zs23De18ZWv8gJUMG9UteDrITTWJBivA/viewform)

참가시 유의 사항 | CES의 경우, 다음의 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참가하실 수 없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 신청서(CES시스템)를 찾을 수 없음
- ❌ 시장에 다수의 제품이 있음
- ❌ 소비자 기술 제품이 아님
- ❌ 웹사이트(영문)가 없음
- ❌ 완제품이 아님
- ❌ 신기술이 아님
- ❌ 이미 판매중인 제품임

발 행 일 | 2021년 7월 15일

발 행 인 | 윤상흠

발 행 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편 집 | 디프리프

디 자 인 | 디프리프

사업총괄 | 글로벌확산실 송정만

사업담당 | 신동진, 이재영, 김미림, 이아라

Copyright© 2021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X Debrief inc. All Rights Reserved.

# Design:On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 Debrief